

# 오지호 유작 돌려받자

창사 55 캠페인

- 1 유족은 광주영구전시 원했다
- 2 과천 지하실에서 우는 수작들
- 3 시민 힘으로 광주 자산 찾아야

# 수장고 어둠속 방치... 22년 '객지 설움'

지난 85년 과천국립현대미술관에 '억지기증'된 오지호 화백의 작품은 유화 32점·목판데생 2점 등 모두 34점이다. 굳이 작품의 가치를 따질 일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옥션과 K옥션 등 경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오 화백의 작품은 점당 최소 수천 만원에 거래된다. 화가 오지호의 미술사적인 위상과 예술성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가의 수작들은 '객지설움'을 특색히 담고 있다. 현재 오지호 화백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의 작품들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작품이 기증된 지 올해로 22년이 지났지만 작품을 기증했던 유족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상설관이나 기념관을 만들려는 미술관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 화백의 예술세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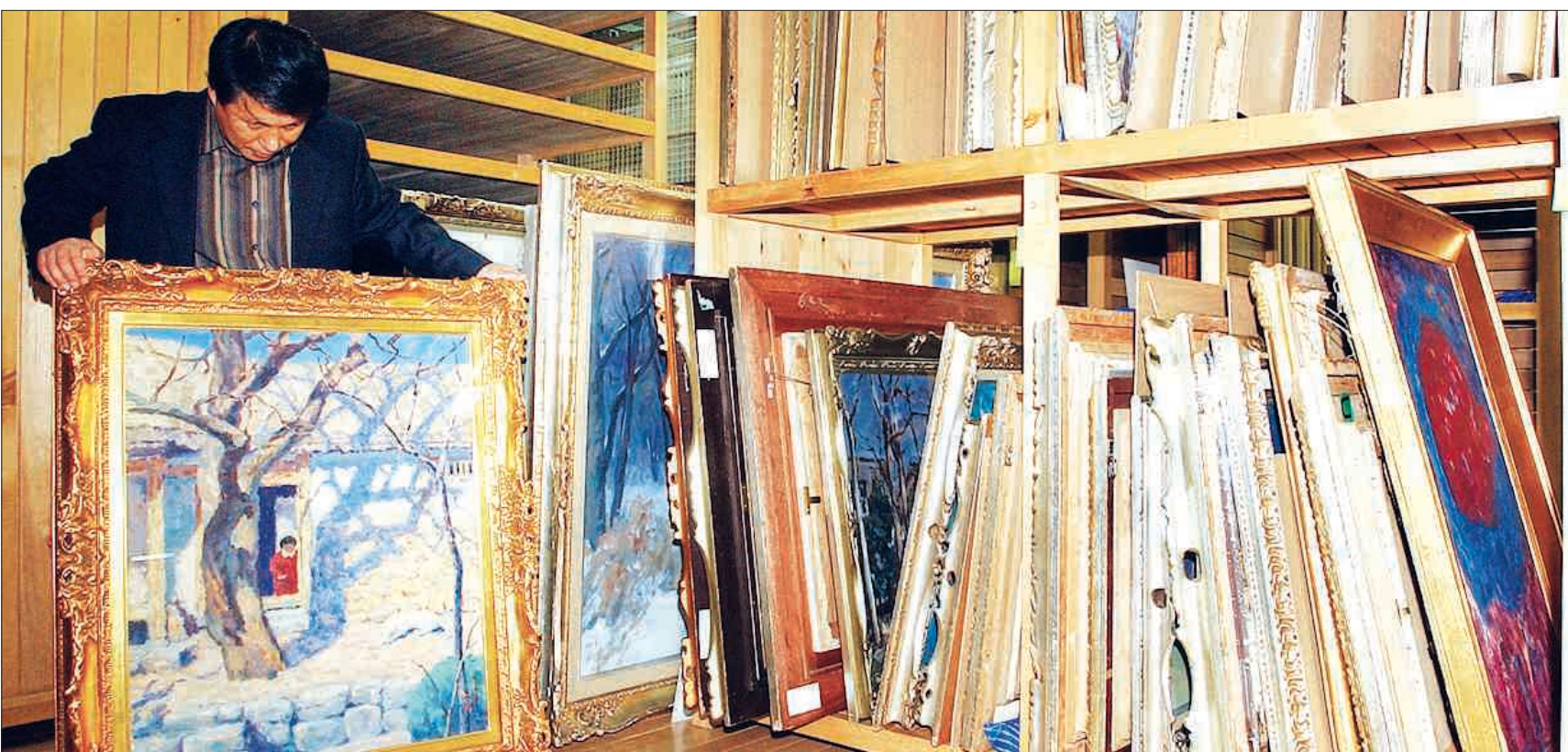
'처의 상' 등 대표작 5~6점을 전시했을 뿐, 작품과 작가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손꼽히는 대표작을 제외하고 각 시기별로 작가의 작업세계를 대표하는 의미있는 작품들은 지하 수장고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미술관 상설전의 프로그램을 바꾼 후 올해부터는 아예 전체 기증작을 지하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오지호 선생의 일부 작품의 경우 보존 복구 작업이 절실하지만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36년 오 화백의 아내인 지양진 여사를 모델로 그린 대표작은 전체 채색물감에 균열이 생겨 복구작업이 절실한데도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작을 좀처럼 그리지 않았던 오 화백이 작업한 '한라춘설'

85년 기증 당시 회고전 이후 특별 전시회 한번도 없어  
상설관 약속도 안 지켜... 일부 작품 훼손 복구작업 못해



오지호 화백의 대표작 34점이 지난 85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됐으나 변변히 전시장에 걸리지 못하고 현재 지하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사진 오른쪽은 오 화백의 작품을 쌓아놓은 보관대. 왼쪽 작품은 오 화백의 대표작 '남향집'.

/위직량기자 jrwi@

집중조명만 것은 지난 85년 작품들을 기증받은 당시 미술관 측에서 개최한 회고전이 유일하다. 기증작을 중심으로 오지호 선생의 작품 150여점을 모아 오지호 회고전(10월24일부터 11월6일까지)을 열었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대규모 전시였던 것.

작품기증을 추진했던 오 화백의 아들 오승우(77)씨에 따르면 작품을 기증할 당시 관장이었던 김세중(1928~1986)씨가 "상설관을 만들어 관객들이 언제든지 오지호 선생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이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도 확인할 길이 없다. 당시 상설관 신설을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작품 전시·보존에 관한 약속을 명시한 기증서류조차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측은 회고전 이후 전체 기증작이나 상설전을 통해 '남향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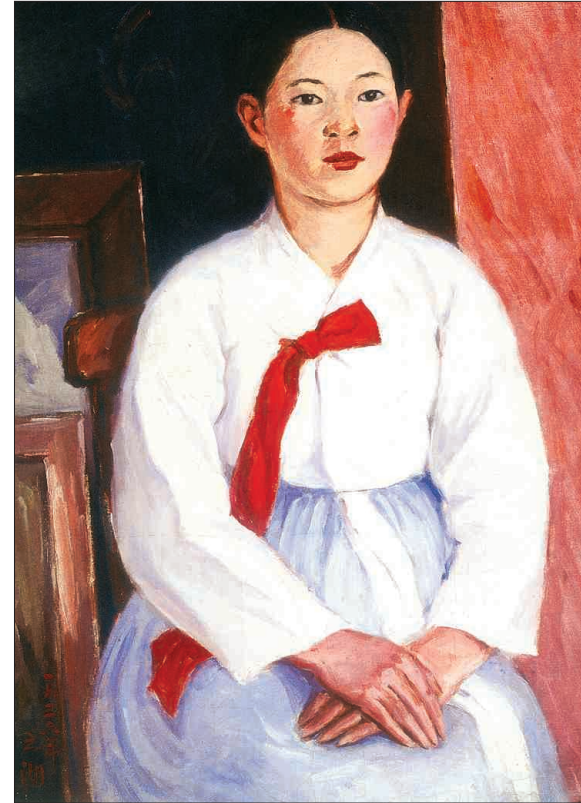
(99.5x145cm)의 경우 액자의 접합부분이 떨어져 너덜거린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한 직원은 "손질이 필요한 일부 작품의 경우 복구작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수장고 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작품 훼손 등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지호 화백과 대조적으로 천경자(82) 화백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VIP대우를 받고 있다. 지난 1998년 천 화백의 작품 93점을 기증받은 서울시립미술관은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으로 '천경자의 혼'을 열었으며, 상설전시공간인 '천경자실'을 신설해 대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오지호 화백의 제자 조규일 백민 미술관장은 "사실상 오지호 화백의 작품이 기증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수장고에 사장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가의 작품을 고향으로 되돌려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 맘·열정 배인 기증작 34점



'처의 상'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오지호 화백의 작품 34점은 한국미술사를 개척했던 예술가의 맘과 열정이 담겨있는 수작들이다.

이 작품들은 수많은 컬렉터들이 탐냈지만 오 화백이 끝까지 곁에 남겨두었던 본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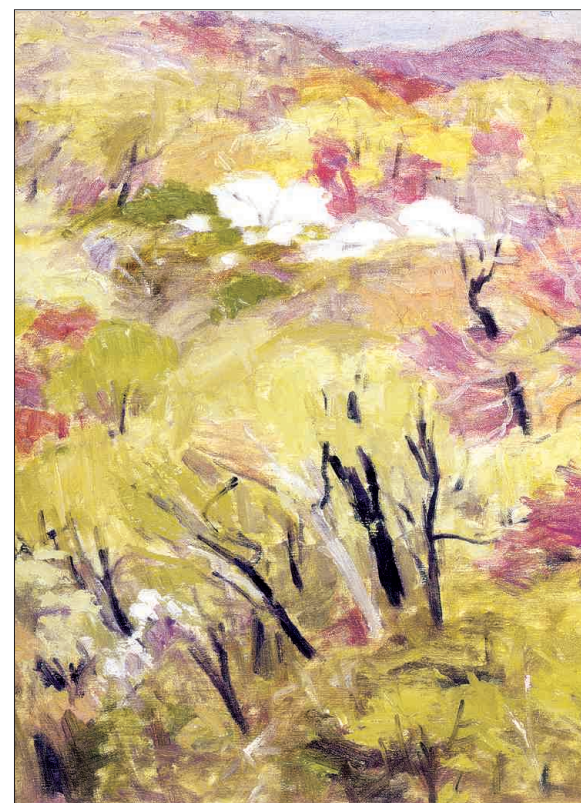
작품 하나 하나마다 거장의 족적과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일본풍경'(1928)은 그의 국내 무대 데뷔작이다. 일본 동경 근교의 풍경을 담은 이 작품은 오 화백이 제7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해 입선한 초기작 가운데 하나다.

아내 지양진 여사를 모델로 그린 '처의 상'(1936)은 붉은 색조와 흰저고리, 옥색치마의 색조를 대비시킴으로써 인상과 화풍을 '자기화'한 걸작으로 꼽힌다.

'무등산록이 보이는 구월 풍경'(1949)은 광주와 무등산을 사랑했던 작가의 마음이 배어있는 작품이다. 분할적 색면 구성에서 벗어나 캔버스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색면으로 구성하는 단순함을 추구했던 1940년대의 작품 경향을 보여준다.

## '처의상' 강렬한 색의 대비... 인상과 화풍의 걸작

## '봄 풍경' 분방한 붓터치 다양한 색채 조화 돋보여



'봄 풍경'

60년대 반추상 경향을 추구했던 작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봄 풍경'(1960)이 꼽힌다. 잔설이 남아있는 초봄 생명이 태동하는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오지호 특유의 분방한 붓터치와 다양한 색채의 조화가 돋보이는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화백은 1970년대 해외여행을 통해 예술가로서 또 하나의 전기를 맞는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함부르크 풍경'(1974), '로테르담 항구'(1975) 등이 있다.

밝고 화사하고 명랑한 원색의 향연을 화폭에 펼친 '꽃-페넬리움'은 노년의 원숙미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아프리카 절필'(1982)은 작가의 미완성 작품이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출품하기 위해 제작했지만 작가가 타계하는 바람에 유작으로 남았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EXPO 2012 YEOSU KOREA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광주·전남도민이 다함께 기원합니다.

# 52 호남예술제

1956-2007 제52회 호남예술제

##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 전국대회

국회의장상·문화관광부 장관상 시상!! / 시상범위 확대!!

**● 미술, 작문, 논술부문 신청**

- 예선 공모기간 : 5월 1일(화)~19일(토)
- 현장 예선 실기대회 신청(미술, 작문부문) : 5월 9일(수)까지
- 현장 예선 실기대회(예정) : 5월 11일(금), 금호패밀리랜드
- ※ 논술부문은 현장 예선 실기대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한글(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우편·방문 접수가능

**미술·작문·논술대회**

- ▶ 예선/결선대회로 실시
- ▶ 미술·작문부문 입선제 도입
- ▶ 논술부문 초등부 1·2학년 제외

**「새싹그리기 축제」공모**

- ▶ 공모기간 : 2007년 6월 1일(금)~6월 19일(화)
-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외 입선제 도입

**장 학 금**

- \* 국회의장상·문화관광부장관상 : 각100만원
- \* 합창·합주제 대상 : 각1팀 50만원
- \* 개인·단체 최고상 : 초등 20만원·중등 30만원·고등 50만원

**■ 대회기간**

- 2007년 4월 23일(월) ~ 6월 30일(토)
- 장소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시민회관, 광주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 행사종목**

- 음악부문 :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기악, 관악, 현악
- 무용부문 : 현대무용, 발레, 한국전통무용, 한국창작무용  
※ 한국전통무용 초등부 저학년(1·2학년)독무 제외
- 국악부문 : 기악, 성악, 가야금(병창·산조), 타악
- 작문부문 : 시(동시), 산문
- 미술부문 :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한국화 일러스트레이션 등
- 논술부문 : 총괄논술 - 초등부 저학년(1·2학년) 제외
- 합창제, 합주제

**■ 시 상**

- 우수학교시상 : 종합최고상, 종합우수상
- 단 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합창·합주제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개 인 : 국회의장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우수지도교시상

**■ 참고사항**

- 참가신청 :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접수처(062-220-0541, 222-8111)
- 경연일정 : 세부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참조
- 관련자료 : 인터넷 한글주소(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주 최 | 광주일보사**

**협 찬 | 삼성생명 호남예술제**

**후 원 |** 문화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전남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대학교·동신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초당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남부대학교·예총광주시연합회·예총전남도연합회

**특별후원 | 대한문화재단**